

## 개인의 계획된 행위와 국가경제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상연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창업 의지와 실제 창업 행위의 흐름을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 TPB)’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그간의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를 단순히 통제변수나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활용하여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 경제환경 변수를 개인 특성변수와 동시에 고려하여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10년 간 31개국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와 OECD 통계자료를 결합한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개인이 발현하는 기업가정신의 최종 모습인 창업활동을 그간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업활동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창업활동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구분·확장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변수 중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창업의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특성 변수 중 인지된 기회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에서는 수요측면의 실질 GDP경제성장률은 생계형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공급측면의 실업률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업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개인특성과 국가 경제환경변수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실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제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수준의 정책이 기획·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활동, 경제환경, 계획된 행위이론

## I. 서론

슈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과 역할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Audretsch & Keilbach 2004; Carree et al., 2007; Kantis, et al., 2002; Rocha, 2004; Wong, et al., 2005).

예컨대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Hisrich & O'cinneide, 1985). 1999년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 미국 Babson College, Kauffman재단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GEM)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이운재, 2003). 즉,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중소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활동이 경제성장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요국들은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성장 자체의 정체, 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쟁력강화법(A COMPETES Act, '07, '10),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09),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UAI, '11)에 따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AUP, '11), JOBS법('11),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NNMI, '13), 영국의 디지털 경제 및 창조산업 육성 노력, 독일의 우수 이니셔티브, 하이테크전략 2020 등은 창업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신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가능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3년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로 설정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창조경제실현계획('13)' 등 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syhan@dju.ac.kr

· 투고일: 2016-07-06 · 수정일: · 게재확정일: 2016-08-11

양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경제성장에 있어 정책적 혹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아온 기업가정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Armington & Acs, 2002; Audretsch & Lehmann 2005; Brixy & Grotz 2007; Cho, 2009; Kirchoff et al., 2007; Lay 2003; Lee, et al., 2004; Lundstrom & Stevenson, 2005; Park et al., 2011; Spilling 1996; Wang, 2006).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기업가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개인의 특성요인을 선행적 영향변수(Context Variable)로 설정한 연구가 있다(조규호, 2009; 박재환, 외, 2011; Ciavarella et al., 2004; Gartner et al., 1989; Hayton et al., 2002; Hornday & Charles, 1970; Lumpkin & Dess, 1996; McClelland, 1965).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개성, 배경, 행태적 특성, 경험과 욕구 및 동기, 신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기업가적 활동으로 발현된다고 분석하였다.

기업가적 활동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 관점은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속한 국가의 환경적 요인이 선행변수로서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사고, 행동, 의사결정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에 기반한다(Weber, 1930).

환경적 요인으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특성 등이 있다. Van de Ven(1993)은 기업가적 활동의 결정요인 규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별 사회·정치·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건들과 기업가적 활동으로서 창업활동과의 관계를 고찰하기도 하였다(Keeble & Walker, 1994; McDougall & Oviatt, 2000; Reynolds et al., 1994).

반면, 이러한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는 그간 개인이 가진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성향이나 인지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개인의 인지적 관점 이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국가·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환경요인들이 충분히 함께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는 반대로 앞서 제시한 환경적 요인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도 개인이 갖는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에도 해당한다.

특히,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국가별 환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분석 연구 자체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에서 외부 환경적 요인을 단순한 외생변수가 아닌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특성 요인과 같은 차원에서 선행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Van de Ven(1993)의 지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의도, 실제 행위와 관련한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을 계획된 행위의론(Theory of Planned Behaviors, TPB)'에 기반하여 모형화 하고, 국가별 경제적 특성 변수로서 공급, 수요, 조세정책 측면에서 반영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즉,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국가별 개인의 특성과 경제적 환경이 계획된 행위의론에 기반하여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로서 창업을 위한 기업가적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로 연계되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으로 발현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4년 사이 10년을 대상으로 OECD국가 31개국 219개 관측치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개인이 갖는 기업가적 태도 및 의도, 행위는 GEM연구에서 조사하는 일반 성인조사(Adult Population Survey, APS)의 결과를 활용하였고, 국가별 경제환경 data는 OECD 통계자료를 결합하여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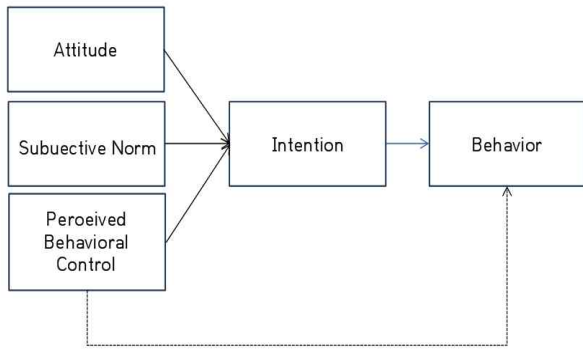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2.1 계획된 행위의론(TPB)과 기업가 정신

계획된 행위의론(TPB)은 창업과 같은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의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계획된 행위의론(TPB)은 Fishbein & Ajzen(1975)이 제시한 합리적 행위의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보완한 이론으로서 Ajzen(1991)이 통합모형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의론(TRA)에 따르면 개인이 가진 특정 행위에 대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인간 사고과정의 결과로 설명한다. 즉, 세부적으로는 개인이 형성하는 행위 의도(Behavioral Intention)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이며, 행위 의도는 다시 행위 대상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연결된다. 또한 행위 시 태도 이외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가하였다. 반면, 이러한 합리적 행위의론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항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수반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가진 정보나 능력, 의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jzen(1991)은 행위의도의 선행변수로서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외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계획된 행위의론(TPB)이라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출처 : Ajzen(1991)

<Figure 1> Theory of Planned Behaviors(TPB) Model

정리하면, 계획된 행위이론(TPB)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위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3가지를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주관적 느낌으로서 호의 혹은 비호의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행위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태도는 대상이 가진 속성에 대한 인지적 지식(Cognitive Knowledge)이라 할 수 있는 신념(Belief)과 차별된다(Mowen & Minor, 1998). 따라서 태도는 개인이 가진 신념과 대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주관적 규범은 대상 행위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이 보이는 지지정도와 같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라고 정의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에 대한 개인적 지각인 규범적 신념과 행위 주체가 준거집단의 의견에 순응하는 정도인 순응동기(Mathieson, 1991)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위통제는 대상하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상 행위를 얼마나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조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준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가진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혹은 자신감(Self-Confidence)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Ajzen, 1991; Armitage & Conner, 2001; Bandura, 1982; Kolvereid & Isaksen, 2006; Taylor & Todd, 1995; Van Gelderen et al., 2008).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의 의도형성과 활동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규명하였다(성창수·김진수, 2011; Krueger & Carsrud, 1993; Busenitz & Lau, 1996; Forbes, 1999; Armitage & Conner, 2001; Mitchell et al., 2002; Fayolle et al., 2006; Van Gelderen et al., 2008; Kautonen et al., 2013). 예컨대 Forbes(1999)의 경우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기업가가 가진 기업가적 의도의 형성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Busenitz & Lau(1996) 역시 기업가적 인지(Entrepreneurial Cognition)를 기업가 스스로 창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신의 정보를 해석하는 사고과정이라고 하였다.

Krueger & Carsrud(1993)와 Fayolle et al.(2006)은 계획된 행위

이론(TPB)에 기반하여 개인이 가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가적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적 정신교육의 효과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계획된 행위이론(TPB)기반 논의를 바탕으로 초기창업활동과 같은 기업가적 행위가 개인이 가진 특성으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같은 3가지 변수와 의도형성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2.2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외부 환경요인은 앞서 제시한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이 있다. 사회문화이론에서는 개인이 처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의 형성 및 창업활동 등의 기업가적 활동을 설명한다. 예컨대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행위는 결국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태적 환경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수행된다는 것이다(Begley & Tan, 2001; Begley et al., 2005; GEM, 2014; Gnyawali & Fogel, 1994; Hayton et al., 2002; Mazzarol et al., 1999; Tan, 2002). 이러한 환경요인들의 영향은 결국 기업가 개인이 인지하는 인식수준에 따라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 방향이나 전략 등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Begley & Tan, 2001; Tan, 2002). 이외에도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창업활동이 결국 개인이 처한 환경 내에서 정치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Begley et al., 2005; Pfeffer & Salancik,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데,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결국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기업가적 활동이 기업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극적인 적응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

Ucbasaram, et al.(2001)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기존 문헌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구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Model)에 기반하여 기업가적 활동이 외부의 환경요인들에 대한 기업가 개인의 인지과정 중 적응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각 국별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간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GEM연구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GEM연구에서는 창업활동이 결국 창업기회요인으로서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이 가진 기업가적 역량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GEM, 2014). 즉 제도, 경제, 정책과 같은 다양한 거시적 관점의 환경변수들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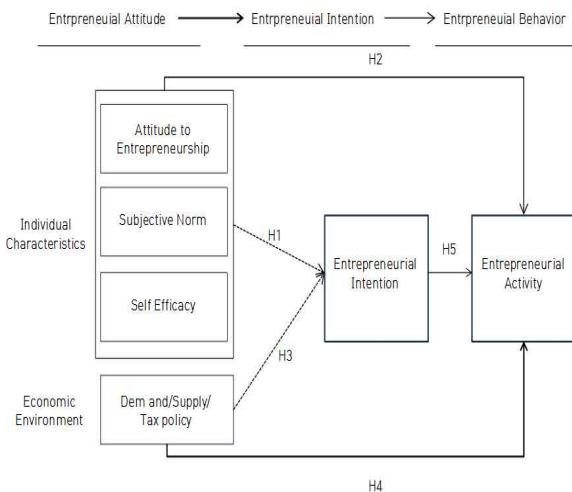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사회, 경제, 정책요인과 같은 환경 변수들을 적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한 바 있다(조규호, 2009; 박승록, 2016; Armitage & Acs

2002; Audretsch & Lehmann 2005; Begley & Tan, 2001; Gnyawali & Fogel, 1994; Hayton et al., 2002; Kirchoff et al., 2007; Lay 2003; Lundstrom & Stevenson, 2005; Rocha & Sternberg, 2005; Spilling 1996; Tan, 2002; Wang, 2006; Woodward et al., 2006). 특히 이와 같은 연구에서 주요 환경 변수 중 경제적환경요인 변수로 활용된 것은 인구, 소득, 교육수준, 이자율, 세금 등이었다. 예컨대 Hayton et al.(2002)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국가적 비교연구에서 환경요인을 제도와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egley et al.(2005)도 국가별로 차별적인 창업환경 요인의 영향분석을 위하여 환경요인을 재무적 자원, 정책, 시장 내 기회, 경쟁상황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Hayton et al.(2002)와 Begley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각각 기업가적 행위의 주체인 개인의 특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환경은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환경변수로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형성 및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경제적 환경수준을 설정하되 앞서 제시한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한 개인 특성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것은 Van de Ven(1993)이 제기한 외부 환경적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업가정신 연구모형의 제시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 III. 연구모형과 가설

#### 3.1 연구모형



<Figure 2> Research Model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이 가진 특성변수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된 창업의도가

창업활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Gartner et al., 1989; Hayton et al., 2002; Lumpkin & Dess, 1996; McClelland, 1965)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특성이 직접적으로 창업실행 등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국가별 경제적 환경요인 역시 개인이 기업가적 의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3.2 연구가설

##### 3.2.1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창업활동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기업가적 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국가 경제적 환경 변수를 활용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따르면, 개인이 가진 특성 변수로서 대상 행위에 대한 태도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지하는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서 자기효능감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한 그간의 많은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실증된 바 있다(성창수·김진수, 2001; 한정희·조건, 2015; Armitage & Conner, 2001; Busenitz & Lau, 1996; Fayolle et al., 2006; Forbes, 1999; Han & Cho, 2015; Kautonen et al., 2013; Krueger & Carsrud, 1993; Mitchell et al., 2002; Van Gelderen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가진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이 창업과 같은 기업가적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하여 개인이 좋은 기회라고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변수는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한 연구이외에서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는데, 먼저 창업에 대한 인지된 기회는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적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Arenius, & Minniti, 2005; Ardichvili et al., 2003; Krueger, 2003; Shane, & Venkataraman, 2000; Wasdani, & Mathew, 2014).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가적 의도의 형성이나 기업가적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위험감수성(Risk Taking or Risk Tolerance)을 개인이 가진 특성중 하나로 설정하여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남규 외, 2015; Amit et al., 1993; Chen et al., 1998; Collins & Moore, 1964; Davis & McClelland, 1962; Hitt et al., 2001; Lee et al., 2011; Mancuso, 1975; Moon & Kim, 2014).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기업가들이 인지하는 위험이 낮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낮기 때문에 기업가적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지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계획된 행위이론(TPB)

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준거집단으로서 주변인들의 영향을 의미한다. 즉, 자신과 연계된 사람들이 행위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같이 개인이 인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이 가진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수록 이것이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창업의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앞서 계획된 행위이론(TPB)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 변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된 행위이론(TPB) 기반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에서 창업 의도 및 창업활동의 선행요인으로 활용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어 왔다(김종호, 2015; Chen et al., 1998; Diaz-Garcia & Jimenez-Moreno, 2010; 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et al., 2000, McGee, 2009; Shinnar et al., 2014). 즉, 창업에 대하여 자신이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창업의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1 : 창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 창업에 대한 인지된 기회는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은 기업가적 활동으로서 창업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enius & Minniti, 2005; Boyd & Vozikis, 1994; Eckhardt & Shane, 2003; Gatewood et al., 2002; Koellinger et al., 2005; Langowitz & Minniti, 2007; Markman et al., 2002, 2005; Shane & Venkataraman, 2000; Verheul et al., 2003; Wagner, 200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변수로서 개인이 인지하는 기회는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renius & Minniti, 2005; Eckhardt & Shane, 2003; Koellinger et al., 2005; Shane & Venkataraman, 2000). 반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형성에 대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창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ngowitz & Minniti, 2007). 예컨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인지하고 직면하는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와 같은 성향의 변수이다. 따라서 Wagner(2004)는 개인적 특성변수로서 인지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활동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역시 마찬가지 이다. 준거집단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받을수록 창업의도 형성은 물론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기반한 연구에서도 대상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활용되었다(Ajzen, 1991).

특히, Markman et al.(2002, 2005)는 기업가와 비 기업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기업가집단에서 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유하고 있음을 실증한바 있다. Boyd & Vozikis(1994)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창업의도와 창업활동 모두에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개인이 가진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결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발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창업활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Verheul et al., 2003).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창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가설 2 : 창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은 창업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 창업에 대한 인지된 기회는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국가별 경제적 환경특성과 창업의도, 창업 활동

국가별 경제적 환경특성의 차이는 선행연구(Begley & Tan, 2001; Begley et al., 2005; GEM, 2014; Gnyawali & Fogel, 1994; Hayton et al., 2002; Tan, 200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Hayton et al.(2002)과 Begley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 정책, 경제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본시장의 규모, 노동시장의 수준, 정부정책 등이 개인의 창업의지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창업의도 및 실질적인 창업 활동에 국가별 경제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3 : 국가별 경제환경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국가별 경제환경은 창업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가별 경제환경을 본 연구에서는 수요(Demand)측면, 공급(Supply)측면, 조세정책(Tax Policy) 측면 변수로 나누었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Audretsch(2002)의 모형에 기반한 것이다. Audretsch(2002)는 기

업가 정신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있어서의 유럽과 미국의 비교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수요, 공급, 정부 정책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변수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Economic Development)는 전통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영향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Audretsch, 2002). 예컨대 경제가 성장하면,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창업을 위한 기회비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egger, 1996; Kuznetz, 1966; Lucas, 19778; Schultz, 1990). 반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의 소득수준 향상이 기업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Acs & Audretsch, 1987; Audretsch, 2002; Carree et al., 2002; Storey, 1999). 이러한 연구결과의 배경에는 경제적 성장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며, 기술적 발전은 이를 더욱 촉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이러한 기업가적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경제 환경 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실질 GDP성장률(GDP Growth Rate)이 증가할수록 창업의도 및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수요 측면의 두 번째 경제환경 변수는 단기 이자율(Short-Term Interest Rate)을 활용하였다. 수요측면의 경제환경 변수는 경제적 기회요인으로서 개인이 창업의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창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Thai & Turkina, 2014). 단기 이자율은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혹은 자본 획득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Bates(1995)는 개인의 창업 의사결정과 자본조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본 접근에 대한 제약이 실제적인 창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잠재적 기업가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본조달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van Auken, 1999). 특히 단기 이자율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은행이 제공하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대체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초기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들의 경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은행 대출의 우대금리(Bank Prime Loan Rate)(Choi & Phan, 2006), 대출 금융의 가용성(Availability of Debt finance)(Ho & Wong 2007), 대출의 용이성(Ease to Access loans)(van Stel et al. 2007)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기 이자율에는 CD 3개월 물이나 시중의 대출금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자료원으로 활용한 OECD통계의 경우 10년만기 국고채와 단기 이자율로서 활용이 가능한 은행간 3개월 기준 제공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다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 자금조달 변수로서, 은행간 3개월 기준 제공 금리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여타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대비 OECD자료의 제공 국가 범위가 넓은 것과 활용자료의 객관

성, 일관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1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단기 이자율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단기 이자율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는 개인이 창업의지를 형성하거나 창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Thai & Turkina, 2014).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Unemployment Rate), 소득수준으로서 국민 1인당 GDP(GDP Per Capita), 인구증가율(Population Growth Rate)을 활용하였다. 먼저 실업률과 GDP Per Capita는 개인이 기업가정신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Bradshaw, et al., 1983).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실업률을 창업의도형성 혹은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용하였다(Bergmann & Sternberg, 2007; Evans & Leighton, 1989; Kannianen & Vesala, 2005; Klapper et al., 2007; Meager, 1992; Parker & Robson, 2004). 연구에 사용된 분석 단위에 따라 창업의도형성 혹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가차원의 매크로수준에서는 높은 실업률이 대부분 경기침체에 의한 것이므로 창업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위험성이 큰 특성이 있다. 따라서 창업의도 및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개인 수준에서는 창업을 위한 기회비용이 감소하므로 창업의도 및 활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udretsch, 200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대상은 기업가적 의도나 활동의 유형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발적 창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계의 유형(Necessity-Driven)의 창업에 한정 될 수 있다고 하였다(Carree et al., 2002; Serviere, 2010).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거시 경제환경 관점에서 OECD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실업률이 높을수록 개인이 형성하는 창업의도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공급측면의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인 GDP per capita는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창업의도의 형성이나 창업활동과 같은 기업가정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cas, 1978; Iyigun & Owen, 1998).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창업을 위한 기회 비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Audretsch(2002)는 개인 소득의 증가는 창업을 위한 자본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 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창업의도 및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 및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번째 공급측면의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는 인구 증가율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창업의도 및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어 왔는데 증가하는 인구 수 만큼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기업가적 의도를 형성하거나 창업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Bais et al., 1995; ILO, 1990). 특히 Reynolds et al., 1999)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는 잠재적인 창업자들이 인지하는 미래의 사업기회에 대한 기대를 촉진하여 더욱 기업가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 3-3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실업률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5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인구성장률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실업률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4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5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인구성장률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는 정부정책이다. 정부 정책은 그간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도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용되어 왔다(Acs & Szerb, 2007, Acs et al., 2007, Ho & Wang, 2007; Bruce & Mohsin, 2006; Kannianen & Vesala, 2005; Levie, 2007; Rocha & Sterberg, 2005). 특히 정부정책 중 조세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OECD(1998)는 높은 세율이 창업의도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나 기존 기업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Audretsch(2002)는 세율이 높으면 조세회피나 탈세(Ttax Avoidance or Evasion)가 늘어나고 합법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구현하려는 기회요인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개인세율 관점에서 보면, 개인세율이 낮을수록 창업의도 및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ullen & Gordon, 2002). 즉, 임금 소득자가 인지하는 평균세율이나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총 노동소득 대비 한계 개인 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Marginal Personal Income Tax(PIT)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SC) on Gross Labor Income(GLI)과 총 노동소득 대비 평균 개인 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Average Personal Income Tax(PIT)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SC) on Gross Labor Income(GLI))이 높을수록 창업의도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 Rate)이 높을수록 개인이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창업의도형성과 창업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 3-6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소득 대비 높은 한계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7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소득 대비 높은 평균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8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법인세율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6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소득 대비 높은 한계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7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소득 대비 높은 평균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8 :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 중 법인세율은 창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창업의도와 창업활동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따르면, 행위의도가 크면 클수록 행위의 실행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즉, 행위의도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이 행위 자체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본 연구모형에 적용하면, 기업이 정신의 발현하는 단계로서 창업의도는 창업행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형성한 창업의도가 창업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가설 5 : 창업의도는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실증분석

### 4.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OECD 31개국의 2005-2014년간 GEM연구 data 및 OECD통계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GEM연구는 1999년부터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와 열망, 활동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창업활동과 관련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GEM연구는 일반성인조사(Adult Population Survey, APS)와 전문가조사(National Expert Survey, NES)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성인조사는 창업활동에 관하여 개인이 인지한 다양한 관점의 변수들을 조사한다. 각 국가별로 최소 2,000명 이상의 일반 성인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응답자들은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TPB)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로서 GEM연구에서 제공하는 설문결과 중 창업에 대한 태도를 활용하였는데, 창업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라고 인지한 사람의 비율과 창

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사람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로서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Table 1> Variables and Measurement

	Variables	Definition and Measurement	Source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ceived opportunities(opp)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see good opportunities to start a firm in the area where they live	GEM data (2005 -2014)
	fear of failure rate(fear)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ith positive perceived opportunities who indicate that fear of failure would prevent them from setting up a business	
	subjective norm(norm)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n their country, most people consider starting a business as a desirable career choice	
	perceived self efficacy(efficacy)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believe to have the required skills and knowledge to start a business	
Economic Environment	real GDP growth	annual growth of real GDP ignoring price changes in percentage	OECD stat
	short-term interest rate	three month interbank offer rate (percentage) attaching to loans given and taken amongst banks for any excess or shortage of liquidity over several months	
	unemployment rate	ratio of number of persons unemployed and the number of persons in the labour force. the criteria for a person to be considered as unemployed or employed are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guidelines, seasonally adjusted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is gross domestic product divided by midyear population. Annual percentag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based on constant local currency. aggregates are based on constant 2005 U.S. dollars.	
	population growth rate	the annual changes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births, deaths and net migration during the year.	
	marginal PIT & SSC on GLI	all-in marginal tax rate, calculated as the combined central and sub-central government income tax (PIT) plus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Employee SSC), as a percentage of gross labour income (GLI) at the 100% level of AW/APW (Average wage/Average production wage)	
	average PIT & SSC on GLI	all-in average tax rate, calculated as the combined central and sub-central government income tax (PIT) plus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Employee SSC), as a percentage of gross labour income (GLI) at the 100% level of AW/APW (Average wage/Average production wage)	
corporate income tax rate	combined central and sub-central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given by the adjusted central government rate plus the sub-central rate		
Dependent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individuals involved in any stage of entrepreneurial activity excluded) who intend to start a business within three years	GEM data (2005 -2014)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are either a nascent entrepreneur or owner-manager of a new business - nascent entrepreneurship rate :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are currently a nascent entrepreneur, i.e., actively involved in setting up a business they will own or co- own; this business has not paid salaries, wages or any other payments to the owners for more than three months - new business ownership rate : percentage of 18 - 64 age group who are currently an owner-manager of a new business, i.e., owning and managing a running business that has paid salaries, wages or any other payments to the owners for more than three months, but not more than 42 months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TEA_nec)	percentage of those involved in 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who are involved in entrepreneurship because they had no other option for work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TEA_ido)	percentage of those involved in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i) claim to be driven by opportunity, as opposed to finding no other option for work; and - (ii) who indicate the main driver for being involved in this opportunity is being independent or increasing their income, rather than just maintaining their income	

GEM연구 data에서는 종속변수로 활용한 창업의도 및 창업 활동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각각 '3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과 초기창업활동(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으로서 '태동기의 창업활동과 초창기 창업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된다. 창업 활동 변수로는 TEA이외 TEA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생계형 창업활동(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TEA\_nec)과 개선형 기회추구 창업활동(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TEA\_id)을 함께 사용하여 창업활동의 유형에 따른 개인특성과 국가별 경제환경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자료원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도에 따라 국가별로 GEM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존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GEM연구 data와 OECD

통계 자료를 결합한 자료는 불균형 패널자료로서 OECD 31개 국 대상, 총 219개의 관찰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 4.2 실증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05년-2014년 10년치 불균형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모델로 사용한 모델은 <Figure 3>과 같다.

$$y_{it} = \alpha + x'_{it}\beta + v_i + \epsilon$$

$i = 1, 2, \dots, N$   
 $t = 1, 2, \dots, T$   
 $\epsilon \sim i.i.d. (0, \sigma^2\epsilon)$

<Figure 3> Empirical Model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Obs	Mean	Std. Dev.	Intention	TEA	TEA_nec	TEA_ido	Opp	fear	norm	efficacy	real_GDP	short_int	unemp	GDPcap	pop_gr	mpit	apit	corptax	
intention	219	10.212	6.101	1																
TEA	219	43.142	10.519	0.655***	1															
TEA_nec	219	34.777	15.427	0.285***	0.092	1														
TEA_ido	219	35.894	7.636	-0.217**	-0.028	-0.556**	1													
Opp	219	1.537	2.924	0.142**	0.359***	-0.550**	0.463**	1												
fear	219	2.643	2.533	-0.036	-0.243**	0.249**	-0.233**	-0.318**	1											
norm	219	7.307	4.111	0.374***	0.319***	0.009	-0.070	0.189**	-0.080	1										
efficacy	219	57.515	12.016	0.445***	0.574***	0.004	-0.163**	0.283**	0.401***	0.503***	1									
real_GDP	219	0.968	2.980	0.187***	0.204**	0.011	0.149**	0.320***	-0.137**	0.082	0.103	1								
short_int	219	0.670	0.745	0.235***	0.241***	-0.176**	0.132**	0.222**	-0.133**	0.163**	0.252**	0.235**	1							
unemp	219	35.362	13.073	0.038	-0.064	0.270**	-0.043**	-0.318**	0.234**	0.033	0.193**	-0.322**	-0.312**	1						
GDPcap	219	23.892	10.732	0.145**	0.214**	-0.068	0.194**	0.147**	-0.067	0.003	-0.006	0.334**	0.333**	-0.333**	1					
pop_gr	219	20.542	11.961	0.128*	0.211**	-0.230**	0.193**	0.353**	-0.210**	0.189**	0.193**	0.319**	0.333**	-0.240**	0.170**	1				
mpit	219	7.162	3.175	-0.470**	-0.340**	-0.271**	0.176**	0.058	-0.023	-0.233**	-0.163**	-0.163**	-0.109	0.001	-0.087	-0.233**	1			
apit	219	18.172	9.644	-0.283**	-0.310**	-0.165**	0.075	-0.054	-0.012	0.025	-0.076	-0.213**	-0.077	0.030	-0.079	-0.233**	0.543**	1		
corptax	219	54.882	11.872	-0.317**	-0.314**	-0.113*	0.269	-0.120*	-0.049	-0.254**	-0.457**	-0.068	-0.332**	-0.231**	-0.042	-0.116*	0.163**	0.180**	1	

\* Notes: \*p < 0.10, \*\*p<0.05, \*\*\*p<0.01 estima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본 실증분석 모형에서  $i$ 는 데이터의  $J$ 번째 국가를 의미하며,  $t$ 는 대상 연도,  $y_{it}$ 는  $i$ 국가의  $t$ 년도의 종속변수인 국가별 국민이 갖는 창업의도정도 및 창업활동 정도를 의미한다.  $x_{it}$ 는 독립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국가별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특성변수 및 경제환경변수가 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불균형 패널자료로서 관찰되지 않은 외생성(Unobservable Exogeneity)으로 인한 편의(bias)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 변화와 무관하게 관찰되지 않은 국가  $i$ 의 고유 특성에 의한 영향(Firm-Specific Effect) 변수인  $\nu_i$ 가 독립변수와 상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nu_i$ 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가정한 추정 값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비하여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es)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이러한 영향 여부를 검정하였다.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 4.3 실증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M-OECD 결합 data는 2005년-2014년 사이 10년간 자료로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관측치 219개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특성과 개인이 속한 국가경제환경 변수가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서 창업의도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독립변수들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동시입력방식(Enter)을 이용하였다. 다만, 정부 정책 중 조세 정책 지표로 사용한 변수 중 총 노동소득 중 한계 개인 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 합계의 비중(Mpit)과 총 노동소득 중 평균 개인 소득세율과 사회보장비용의 합계 비중(Apit)은 상관관계가 큼에 따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회피하고자 교차하

여 투입한 후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인특성변수와 국가경제환경변수를 동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개인특성변수 중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특성변수 중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t=1.85, p<0.10; t=1.87, p<0.10$ )은 유의확률 0.10 수준에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인 개인특성변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세부가설인 가설 1-3만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경제환경변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다.

<Table 3> Result of Panel Analysis(H1/H3)

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Entrepreneurial Intention		
H 1	opp	0.055(0.037)	0.055(0.037)
	fear	-0.092(0.058)	-0.094(0.059)
	norm	0.093(0.050)*	0.094(0.050)*
	efficacy	-0.081(0.071)	-0.082(0.071)
H 3	real_GDP	-0.031(0.103)	-0.0337(0.104)
	short_int	0.021(0.205)	0.024(0.205)
	unemp	0.043(0.107)	0.050(0.110)
	GDPcap	0.143(0.099)	0.147(0.100)
	pop_gr	-0.489(0.537)	-0.485(0.535)
	mpit	-0.001(0.031)	
	apit		-0.011(0.041)
	corptax	-0.006(0.141)	-0.000(0.143)
Const.	-848.8195(253.610)	-853.365(254.060)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Adjusted R2	0.160	0.161	
F-Value(P)	8.88***	10.49***	
N	219	219	

\* Notes: \*p < 0.10, \*\*p<0.05, \*\*\*p<0.01 estima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다음으로 가설 2 및 4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특성과 국가경제환경 변수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특성변수 중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변수로서 창업에 대한 인지된 기회( $t=2.99, p<0.01; t=3.04, p<0.01$ )

<Table 4> Result of Panel Analysis(H2/H4)

Dependent Variable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Entrepreneurial Behavior					
		TEA		TEA_Nec		TEA_Ideo	
H2	opp	0.066(0.020)***	0.067(0.020)***	-0.260(0.062)***	-0.261(0.062)***	0.320(0.088)***	0.315(0.089)***
	fear	-0.063(0.031)**	-0.066(0.031)**	0.071(0.099)	0.071(0.100)	-0.117(0.140)	-0.115(0.142)
	norm	0.017(0.027)	0.020(0.027)	0.170(0.086)**	0.168(0.085)*	-0.146(0.121)	-0.160(0.122)
	efficacy	0.011(0.038)	0.009(0.038)	0.108(0.121)	0.109(0.121)	0.123(0.171)	0.136(0.172)
H4	real_GDP	-0.057(0.055)	-0.060(0.055)	0.357(0.175)**	0.357(0.176)**	0.026(0.249)	0.033(0.251)
	short_int	0.010(0.109)	0.014(0.109)	-0.396(0.348)	-0.399(0.348)	-0.043(0.493)	-0.062(0.496)
	unemp	-0.094(0.057)*	-0.083(0.059)	0.268(0.181)	0.265(0.187)	-0.574(0.257)**	-0.603(0.267)**
	GDPcap	0.151(0.053)***	0.153(0.053)***	-0.306(0.168)*	-0.303(0.169)*	0.403(0.238)*	0.417(0.241)*
	pop_gr	-0.385(0.285)	-0.366(0.286)	-1.076(0.910)	-1.096(0.908)	0.144(1.290)	0.009(1.292)
	mpit	-0.012(0.016)		0.015(0.053)		0.096(0.074)	
	apit		-0.013(0.022)		-0.000(0.069)		0.019(0.098)
	corptax	-0.017(0.075)	-0.011(0.076)	0.212(0.240)	0.214(0.242)	-0.284(0.339)	-0.285(0.345)
Const.	0.312(0.067)	0.313(0.067)	0.172(0.214)	0.175(0.214)	-0.525(0.303)	-0.513(0.305)	
Year dummy	-618.879(134.811)***	-621.208(135.148)***	-341.025(430.013)	-345.795(430.978)	1112.639(609.437)*	1091.893(613.714)*	
Adjusted R2	0.308	0.307	0.253	0.252	0.288	0.281	
F-Value(F)	4.66***	5.15***	6.59***	6.47***	3.74***	3.65***	
N	219	219	219	219	219	219	

\* Notes: \*p < 0.10, \*\*p<0.05, \*\*\*p<0.01 estima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가 초기창업활동(TEA)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실패에 대한 인지된 두려움 (t=-2.04, p<0.05; t=-2.10, p<0.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다. 국가경제환경 변수 중에서는 실업률과 GDP per capita가 각각 채택되었는데, 실업률(t=-1.66, p<0.10)은 가설 설정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기 창업활동(TE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3은 채택되었다. GDP per capita(t=2.87, p<0.01; t=2.89, p<0.01) 역시 당초 가설과 같이 정(+)의 방향으로 초기창업활동(TEA)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4를 채택하였다.

GEM에서 조사하는 초기창업활동(TEA)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상대적으로 비교가능하고 창업활동의 질적(Quality)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변수는 초기 창업활동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생계형 창업활동은 창업자체가 창업자 개인이 선택한 직업으로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은 본인이 자유롭게 독립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추가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창업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초기창업활동(TEA)이외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과 국가별 경제환경이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Table 4>에 함께 제시하였다.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특성변수 중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던 창업에 대한 인지된 기회는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 (t=3.62, p<0.01; t=3.55, p<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 (t=-4.18, p<0.01; t=-4.19, p<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특성변수 중 초기창업 활동

(TEA)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주관적 규범(t=1.98, p<0.05; t=1.98, p<0.05)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환경변수를 보면,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실질GDP성장률(t=2.04, p<0.05; t=2.03, p<0.05)이 생계형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실업률은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 (t=-2.24, p<0.05; t=-2.26, p<0.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GDP per capita는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먼저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한 영향과는 반대로 부(-) (t=-1.82, p<0.10; t=-1.79, p<0.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다시 정(+) (t=1.69, p<0.05; t=1.73, p<0.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개인이 갖는 기업가정신관련 인지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환경 특성도 초기기업가활동의 질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Result of Panel Analysis(H5)

Dependent Variable	Model 9	Model 10	Model 11
	Entrepreneurial Behavior		
	TEA	TEA_Nec	TEA_Ideo
intention	0.274(0.038)***	-0.037(0.136)	0.104(0.195)
Const.	-231.649 (8.3353)***	-779.810 (301.468)***	1796.685 (433.028)***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usted R2	0.313	0.038	0.083
F-Value(F)	42.41***	3.72**	8.46***
N	219	219	219

\* Notes: \*p < 0.10, \*\*p<0.05, \*\*\*p<0.01 estima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마지막으로 가설 5의 검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개인이 갖는 창업의도( $t=7.29, p<0.01$ )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따라 초기창업활동(TEA)과 같은 창업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나머지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진 인지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국가경제환경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창업의도형성과 초기창업활동과 같은 기업가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간의 연구들이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를 단순히 통제변수나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만 활용하여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간의 연구들이 개인특성 요인에 집중함에 따라 국가경제환경과 같이 개인이 처한 수요, 공급, 조세정책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는 지적(Van de Ven, 1993)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온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연구모형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개인이 갖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특성과 국가경제환경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그간 글로벌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 활용빈도가 낮았던 GEM data를 OECD통계자료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증분석을 위한 data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창업활동이라는 양적변수만을 활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활동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GEM에서 조사된 초기창업활동(TEA)이외 이를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2005년-2014년 사이 10년간 31개국 219개의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요약하여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진 인지적 특성과 국가경제환경특성이 창업의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인 가설 1의 분석에서는 개인특성변수 중 주관적 규범만이 초기창업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만이 채택되었다. 즉, 개인이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주변인들의 영향이 창업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다양한 경로로 전달되는 경제적 부의 성취 등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이 가진 기업가정신을 자극하고 창업의도와 같은 동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기업가정신, 창업 등에

대한 인식, 가치, 문화 등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규명된 바 있다(Cuervo, 2005; Jeong & Cho, 2013). Yu & Yang(2008)도 이와 관련하여 창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위상(social status)부여가 개인들이 기업가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Table 6> Summary of Results

	Dependent Variable	H 1/3	H 2/ 4/ 5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Behavior		
			TEA	TEA_Ne c	TEA_Ide o
Individual Characteristics	opp		+***	-.***	+***
	fear		-**		
	norm	+*		+**	
	efficacy				
Economic Environment	real_GDP			+**	
	short_int				
	unemp		.*		-.**
	GDPcap		+***	.*	+*
	pop_gr				
	mpit				
	apit				
corptax					
Entrepreneurial Intention			+***		

\* Notes: \*p < 0.10, \*\*p<0.05, \*\*\*p<0.01 estima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다음으로 가설2인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인지적 특성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한 기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2-2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인지하는 기회는 그간 많은 선행연구(Arenius & Minniti, 2005; Eckhardt & Shane, 2003; Koellinger et al., 2005; Shane & Venkataraman, 2000)를 통해 창업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창업활동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창업활동(TEA)을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는 인지된 창업 기회가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계형 창업활동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인지된 기회가 생계형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과 달리 개인이 인지하는 창업기회가 생계형 형태의 창업과는 거리가 멀고, 자발적 신념이나 기획 포착에 따른 행위라기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본래 정의와 같이 별다른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된 행위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창업과 관련한 기회를 인지할수록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은 증가하는 반면, 생계형 창업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해서는 영향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창업의도형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측면의 국가경제환경 변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 가설 4에 해당하는 국가경제환경 변수가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가설 4-1 수요측면 변수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 가설 4-3 공급측면 변수 실업률, 가설 4-4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이 생계형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Acs & Audretsch, 1987; Audretsch, 2002; Carree et al., 2001; Storey, 1999)를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더욱 활발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다양성 확대 및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창업기회 자체의 양적확대가 주요한 요인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이 생계형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 분석 결론과는 반대로 2005년-2014년인 분석 대상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가 대량의 생계형 창업을 추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설 4-3에 해당하는 국가경제환경 측면의 공급변수 중 실업률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영향 중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이 높을수록 초기창업활동(TEA)이나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창업활동이 상당한 위험성(risk)을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실업률이 높은 경기침체기에는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로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의 경우 단순히 실업률 보다는 실제 개인이 인지한 창업의 기회와 본인의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영향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4-4 국민소득 수준(국민 1인당 GDP)은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활동(TEA)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Audretsch(2002)가 제시한 개인 소득 증가에 따른 창업 자본조달의 용이성 향상 및 창업활동 증가가 실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창업을 위한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창업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나타난 생계형 창업활동에 대한 영향은 Lucas(1978) 및 Iyigun & Owen(1998)이 제시한 바와 같이 높은 개인 소득이 창업을 위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계형 창업활동이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혹은 창업을 하는 경우

포기해야하는 소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결론이 기존 연구결과의 논리와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설 5인 창업의도형성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따라 행위의도가 행위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즉, 개인이 갖는 창업의도가 초기창업활동(TEA)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인지적 특성과 국가경제 측면의 거시적 환경 특성이 개인의 창업의도형성과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TPB) 모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당초 가정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여부가 규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국가경제 측면의 변수 중 조세정책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창업의도형성이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진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이론적 모형이나 선행연구에서 실증된 것과는 다르게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는 실증분석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개인이 가진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변수 중 국가적 차원의 선행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상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정책적 기여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기존의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연구와는 다르게 개인이 갖는 인지적 특성과 국가경제 측면의 거시적 환경 특성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는 그간 기업가정신을 발현하는 개인의 외부 환경적 요인을 단순 외생변수가 아닌 개인적 특성요인과 동일한 수준의 선행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Van de Ven, 1993)을 해소하는 단초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OECD 31개국의 219개 관측치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함에 따라 실증분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서 최종적으로 측정되는 창업활동을 단순한 변수가 아닌 질적측면을 고려한 생계형 창업활동과 개선 및 기회추구 창업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함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데이터는 그간 장기간 방대한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흡하였던 GEM data를 OECD자료와 결합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논의 및 분석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가 국가 수준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거시 경제환경 변수들을 수요, 공급, 정부정책 차원으로 분류하여 사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개인이 갖는 기

회인지, 두려움이 거시 경제환경 변수와 동시에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인이 창업의도 형성 및 창업활동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정에 맞는 정책 수준을 미시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즉, 동일한 국가 경제환경 상황에서도 개인이 갖는 기업가정신의 발현 요인이 차별적이며, 반대로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개인의 특성이 국가별 경제환경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인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책의 기획과 시행을 개인적 특성과 경제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

김종호(2015).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4 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42, 259-275.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12).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박승록(2016). 기업이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8(1), 237-260.

박재환·안승권·윤인철(2011).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4), 2499-2520.

성창수·김진수(2011). 일반 논문: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3), 109-133.

이윤재(2003).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GEM 가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5(3), 105-127.

조규호(2009). 국가적 환경특성과 창업가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 *한국창업학회지*, 4(4), 71-94.

한정희·조건(2015).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11-118.

Acs, Z. J. & Audretsch, D. B.(1987). Innovation, market structure, and firm siz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4), 567-574.

Acs, Z. J., Gorman, C. O., Szerb, L., & Terjesen, S.(2007). Could the Irish miracle be repeated in Hungar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23-142.

Acs, Z. J. & Szerb, L.(2007). Entrepreneurship,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09-122.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mit, R., Glosten, L. & Muller, E.(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815-834.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Armington, C. & Acs, Z. J.(2002).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6(1), 33-45.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Audretsch, D. B.(2002). *Entrepreneurship: determinants and policy in a European-US comparis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Audretsch, D. B. & Keilbach, M.(2004).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38(8), 949-959.

Audretsch, D. B. & Lehmann, E. E.(2005). Does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hold for regions?, *Research Policy*, 34(8), 1191-1202.

Bais, J., van der Hoeven, W. H. M & Verhoeven, W. H. J. (1995). *Determinanten van zelfstandig ondernemerschap : een Internationale vergelijking*, Den Haag : OSA-werkdocument.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Bates, T.(1995). Self-employment entry across industry group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143-156.

Begley, T. M. & Tan, W. L.(2001).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 A comparison between East Asian and Anglo-Saxon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537-553.

Begley, T. M., Tan, W. L. & Schoch, H.(2005). Politic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est in starting a business : A multi-count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1), 35-55.

Bergmann, H. & Sternberg, R.(2007). The changing face of entrepreneurship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205-221.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Bradshaw, J., Cooke, K., & Godfrey, C.(1983).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the living standards of families, *Journal of Social Policy*, 12(04), 433-452.

Bregger, J. E.(1996).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19(1), 3-9.

Brixy, U. & Grotz, R.(2007). Regional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birth and survival of new firms in Western German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4), 293-312.

Bruce, D. & Mohsin, M.(2006). Tax policy and entrepreneurship : New time series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26(5), 409-425.

Busenitz, L. W. & Lau, C. M.(1996). A cross-cultural cogni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4), 25-40.

Carree, M., Van Stel, A., Thurik, R. & Wennekers, S.(2002).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an analysis using data of 23 OECD countries in the period 1976-1996, *Small Business Economics*, 19(3), 271-290.

Carree, M., Van Stel, A., Thurik, R. & Wennekers, S.(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Ownership Revisited,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9(3), 281-291.

Chen, C. C., Green,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 K. H.(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Influencing o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4), 71-94.
- Choi, Y. R. & Phan, P. H.(2006). The influences of economic and technology policy on the dynamics of new firm form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26(5), 493-503.
- Ciavarella, M. A., Buchholtz, A. K., Riordan, C. M., Gatewood, R. D. & Stokes, G. S.(2004). The Big Five and venture survival: Is there a linkag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4), 465-483.
- Collins, O. & Moore, D. G.(1964). *The Enterprising M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East Lansing, M
- Cuervo, A.(2005),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3), 293-311.
- Cullen, J. B. & Gordon, R. H.(2002). *Taxe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 Theory and evidence for the U.S.*, NBER Working Paper No. 9015.
- Davis, R. C., & McClelland, D. C.(1962). *The achieving society*.
- Diaz-Garcia, M. C. & Jimenez-Moreno, J.(2010). Entrepreneurial intention : the role of gender,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261-283.
- Eckhardt, J. & Shane S. A.(2003).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29(3), 333-349.
- Evans, D. & Leighton, L.(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Fayolle, Alain, Gailly, Benoit, Lassas-Clerc & Narjisse(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ia Aplicada*, 24(2), 509-523.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Forbes, D. P.(1999). Cognitive approaches to new venture cr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4), 415-439.
- Gartner, W. B., Mitchell, T. R., & Vesper, K. H.(1989). A taxonomy of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3), 169-186.
- Gatewood E. J., Shaver, K. G., Powers, J. B. & Gartner, W. B.(2002). Entrepreneurial expectancy, task effort, and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87-206.
-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43-62.
- GEM(201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4 Report*.
- Han, J. H. & Cho, G.(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11-118.
- Hayton, J. C., George, G. & Zahra, S. A.(2002). National culture and entrepreneurship : A review of behavioral research,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26(4), 33-53.
- Hisrich, R. D. & O'Kinneide, B.(1985). *The Irish Entrepreneur :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Future Success*. Tulsa, OK :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ulsa.
- Hitt, M. A., Ireland, R. D., Camp, S. M. & Sexton, D. L.(2001). Guest editor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trategic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479-491.
- Ho, Y. P. & Wong, P. K.(2007). Financing, regulatory costs and entrepreneurial propensit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87-204.
-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ILO)(1990). *The Promotion of Self-Employment*, Geneva: ILO.
- Iyigun, M. F. & Owen, A. L.(1998). Risk, entrepreneurship, and human-capital accumulation, *AEA Papers and Proceedings*, 88(2), 454-457.
- Jeong, Y. S. & Cho, S. E.(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for new business startup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8(5), 57-73.
- Kannianen, V. & Vesala, T.(2005). Entrepreneurship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Economic Modelling*, 22(5), 828-847.
- Kantis, H., Ishida, M., & Komori, M.(2002).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irm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Kautonen, T., Van Gelderen, M. & Tornikoski, E. T.(2013). Predic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lied Economics*, 45(6), 697-707.
- Keeble, D. & Walker, S.(1994). New firms, small firms and dead firms: spatial patterns and determinants in the United Kingdom, *Regional studies*, 28(4), 411-427.
- Kim, J. H.(2015).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ial Attitudes on Individuals Decision on Start-ups : The Case of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2, 259-275.
- Kirchhoff, B. A., Newbert, S. L., Hasan, I., and Armington, C.(200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R&D on new business formations and employment grow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4), 543-559.
- Klapper, L., Amit, R., Guillén, M.F. & Quesada, J. M.(2007). *Entrepreneurship and firm formation across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313.
- Koellinger, P., Minniti, M. & Schade, C.(2005). *I Think I Can, I Think I Can... : A Study of Entrepreneurial Behavior*, DIW Discussion Paper No. 501.
- Kolvreid, L. & Isaksen, E.(2006). New business start-up and subsequent entry into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6), 866-885.
- Krueger, N. F.(2003). The Cognitiv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in Acs, Z. J. and Audretsch, D. B.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 An interdisciplinary survey and introduction*, Kluwer, London, 105-140.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91-104.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Kuznetz, S.(1966). *Modern Economic Growth :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ngowitz, N. & Minniti, M.(2007). The entrepreneurial propensity of wome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41-364.
- Lay, T. J.(2003). The determinants of and interaction between entry and exit in Taiwan's manufacturing, *Small Business Economics*, 20(4), 319-334.
- Lee, S. M., Lim, S. B. & Pathak, R. D.(201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A multi-country stud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1), 1-15.
- Lee, S. Y., Florida, R. & Acs Z, J.(2004).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A regional analysis of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8(8), 879-891.
- Lee, Y. J.(200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 Revisited GEM Hypothesi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5(3), 105-127.
- Levie, J.(2007). Immigration, in-migration,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Kingdom,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43-169.
- Lucas Jr., R. E.(1978).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2), 508-523.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ndstrom, A. & Stevenson, L. A.(2005). *Entrepreneurship policy : Theory and practice*, Boston: Springer.
- Mancuso, J. R.(1975). *The entrepreneur's quiz*, In: Baumack, C.M., Mancuso, J.R. (Eds.).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Prentice Hall, New Jersey.
- Markman, G. D., Balkin, D. B. & Baron, R. A.(2002). Inventors and new venture formation: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regretful think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49-166.
- Markman, G. D., Baron, R. A. & Balkin, D. B.(2005). Are perseverance and self-efficacy costless? Assessing entrepreneurs' regretful thin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1), 1-19.
- Mathieson, K.(1991). Predicting user intentions: compar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formation System Research*, 2(3), 173-191.
- Mazzarol, T., Volery T., Doss N., & Thein, V.(1999).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a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2), 48-63.
- McClelland, D. C.(1965). N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
- McDougall, P. P. & Oviatt, B. M.(2000).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the intersection of two research path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02-906.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eager, N.(1992). Does unemployment lead to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4(1), 87-103.
- Mitchell, R. K., Busenitz, L., Lant, T., McDougall, P. P., Morse, E. A. & Smith, J. B.(2002).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gnition: Rethinking the people sid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93-104.
- Moon, S. Y. & Kim, J. H.(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 Gender Differ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1), 19-29.
- Mowen, J. C. & Minor, M.(1998).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OECD(1998). *Fostering Entrepreneurship, the OECD jobs strategy*, Paris: OECD.
- Park, S. R.(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Determinants, Performances and Impacts of Entrepreneurship,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8(1), 237-260.
- Park, J. H., An, S. K. & Yoon, I. C.(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Park, N. G.,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9-98.
- Parker, S. C. & Robson, M. T.(2004).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1(2), 287-301.
- Pfeffer, J. & Salancik, G. R.(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Reynolds, P. D., Hay, M. & Camp, S. M.(199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xecutive Report*, Babson College, London Business School and the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Reynolds, P., Storey, D. J. & Westhead, P.(1994).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the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ates, *Regional Studies*, 28(4), 443-456.
- Rocha, H. O.(2004).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The role of clusters, *Small Business Economics*, 23(5), 363-400.
- Rocha, H. O. & Sternberg, R.(2005).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cluster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67-292.
- Schultz, T. P.(1990). Women's changing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 a world per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8(3), 457-488.
- Serviere, L.(2010). Forced to entrepreneurship: modeling the factors behind necessity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22(1), 37-53.
- Shane, S. A.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innar, R. S., Hsu, D. K., & Powell, B. C.(2014).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gender : Assessing the impact

-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longitudinall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561-570.
- Spilling, O. R.(1996). Regional variation of new firm formation : The Norwegian case,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8(3), 217-243.
- Storey, D. J.(1999). *Six steps to heaven: evaluat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to support small business in developed economies*, in : D.L. Sexton and H. Landstrom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Oxford : Blackwell.
- Sung, C. S. & Kim, J. S.(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3(3), 109-133.
- Tan, J.(2002). Culture, nation, and entrepreneurial strategic orientations: Implications for an emerging econom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4), 96-111.
- Taylor, S. & Todd, P. A.(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144-176.
- Thai, M. T. T. & Turkina, E.(2014). Macro-level determinants of formal entrepreneurship versus inform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4), 490-510.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1). The focus of entrepreneurial research: contextual and process issu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4), 57-80.
- Van Auken, H. E.(1999). Obstacles to business launch,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4(2), 175-187.
- Van Gelderen, M., Brand, M., Van Praag, M., Bodewes, W., Poutsma, E. & Vangil, A.(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rr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4), 538-559.
- Van Stel, A., Storey, D. J. & Thurik, A. R.(2007). The effect of business regulations on nascent and young business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71-186.
- Verheul, I., Uhlaner, L. & Thurik, R.(2003). *Business accomplishments, gender and entrepreneurial self-image*, SCALES-paper N200312, Zoetermeer, The Netherlands.
- Wang, S. W.(2006). Determinants of new firm formation in Taiwan, *Small Business Economics*, 27(4-5), 313-321.
- Wagner, J.(2004). *What a Difference a Y Makes : Female and Male Nascent Entrepreneurs in Germany*. IZA DP No. 1134.
- Wasdani, K. P. & Mathew, M.(2014). Potential for opportunity recognition: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3(3), 336-362.
- Weber, M.(1930).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Talcott Parsons*. publisher not identified.
- Wong, P. K., Ho, Y. P. & Autio, E.(200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GEM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35-350.
- Woodward, D., Figueiredo, O. & Guimaraes, P.(2006). Beyond the Silicon Valley : University R&D and high- technology loc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60(1), 15-32.
-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nvironment on Entrepreneurship\*

Sangyun, Han\*\*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nvironment on the entrepreneurship such a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r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s. This study used a country-level merged data set composed of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 and the OECD Statistics data. And this used the fixed effect model to analyze the panel data of 31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Our findings show that subjective norm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perceived opportuniti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and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We identify the differences of between necessity-driven and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For example, the effect on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is significantly negative. We also find the differences of between necessity-driven and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in economic environment variables. While real GDP growth as a demand variabl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unemployment rate as a supply variable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and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GDP per capita as a supply variabl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and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But the effect on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is significantly negative. We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se empirical finding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nvironment simultaneously in promoting entrepreneurship.

*Key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Behavior. Economic Environmen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s*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jeon University fund (2015)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aejeon University, syhan@dju.ac.kr